

최저임금 올라도 근로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근로소득 공제액 60만원 → 84만원으로 상향

독립 유공자, 생활지원금·기초연금 동시 수령

#1.광주에 거주하는 건물 청소원 이모(여·67)씨는 지난해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인 135만2000원을 받았다.

이씨는 월급과 기초연금(20만6050원)을 받아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간신히 부담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월급이 157만3000원으로 올랐다. 이씨는 월급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2018년 근로소득 공제액이 확대돼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2.독립유공자 후손인 이모(80) 할아버지는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해 왔다. 올해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33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기초연금 탈락이 걱정됐다.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한 덕분에 이 할아버지는 기초연금과 생활지원금을 동시에 받게 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노인들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기초연금 탈락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도 눈에 띈다.

올해 1월부터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소득이 낮은 사람(1만1000여명 대상)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000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

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 탈락했지만,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적극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랑의 헌혈 합시다” 22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마련된 헌혈차 안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냉기 도는 ‘전남 사랑의 온도탑’

80억원 모금해 목표액 17억 부족...종료까지 10일 남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모금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온도탑’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

22일 전남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82도를 가리키며 목표액 97억원에서 17억원이 부족한 80억원을 모금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도 낮은 수치로, 지난해는 목표액(81억7000만원)을 초과한 83억3300만원을 모아 102도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던 전남모금회는 올해에는 목표액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인 기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달 19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법인 후원금 비율은 48.5%에서 43.7%로 줄었다. 기부에 참여한 법인수도 804개에서 648개로, 성금 총액은 43억 6300만원에서 34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목표액 달성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모금액 상승률은 더디기만 하다.

이날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2.도(모금액 50억원)를 가리키며 목표액(51억원) 달성까지 1억원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3도(48억원)를 가리키며 목표액(42억5000만원)을 조기 달성했다.

이날 현재 전국의 ‘사랑의 온도탑’ 평균 온도는 93.1도(목표액 3994억원·모금액 3720억원)다.

/김용희기자 kimyh@

조선대 이사 2명 추가 선임

조선대학교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됐다. 추가로 1명만 선임되면 정원인 9명을 채우게 된다.

22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최근 박관석(62)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희(54)광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 2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교육부는 조선대 전체 9명 임시이사 중 나머지 1명도 조만간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선임 예고된 김선미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시이사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해질녘 19:51

달돋이 11:09
달질 23:38

다시 한파

중국북부에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 늦게부터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주 차차흐려져 눈	-4/-2	보성	구름 많음	-5/-2
목포	차차흐려져 눈	-3/-3	순천	맑음	-4/-2
여수	구름 많음	-4/-2	영광	차차흐려져 눈	-6/-4
나주	차차흐려져 눈	-5/-3	진도	구름 많음	-3/-2
완도	구름 많음	-4/-2	전주	구름 많음	-7/-5
구례	구름 많음	-6/-4	군산	차차흐려져 눈	-7/-5
강진	구름 많음	-3/-1	남원	구름 많음	-7/-5
해남	구름 많음	-4/-2	흑산도	구름 많음	-2/-1
장성	차차흐려져 눈	-6/-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1.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04	05:49
	23:35	18:13
여수	간조	만조
	06:28	00:35
	19:09	12:53

◇주간 날씨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10/-4	-9/-4	-10/0	-8/2	-5/1	-5/1	-4/4

◇생활지수

	매우높음
	높음
	매우높음
	감기
	미세먼지
	좋음

“학종, 대학별 평가결과 공개 제도화해야”

광주 대입정책 포럼...차정민 중앙대 입학사정관 개선 자료

학생의 부모나 사회적 배경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평가결과와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차정민 입학사정관은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리는 ‘제1차 광주 대입정책 포럼’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방안’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대입 수시모집 전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종이 ‘금수저 전형’ ‘복불복 전형’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안이다.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소위 ‘깜깜이 전형’,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평가결과가 결정된다는 소위 ‘금수저 전형’ 등에 대한 우려로 신뢰도가 하락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별 평가결과와 공개를 제도화하고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로 학교 내에서(학생의 부모 직업 등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종에)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등산 자락 고층아파트 건설 안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하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계획 등이 담긴 건축사업 허가 요청이 광주 동구청에 접수된 상황”이라며 “자연녹지 등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아파트 예정 대지는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된 곳이자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라면서 “지반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이 우려돼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아파트 신축 추진 조합은 광주지하철 소태역 인근에 지하1~지상16층, 6개 동 279가구 규모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동구는 최근 이 아파트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승인요청을 접수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송빌딩
Tel. (062) 382-8879

분양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구 | 자산동, 소태동
• 서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구 | 주월동
• 북구 | 신원동, 연제동, 유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